




소망으로
감동됨

7과. 2024년 5월 18일



“그 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할 것이며” (이사야 25:9)



성경에 예언된 사건들이 그대로 이루어지자 전 세계 사람들은 곧 오실 예수님을 연구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 중에는 독일의 요한 알브레히트 벵겔(1687-1752), 칠레의 마누엘 라쿤자(1731-1801); 북미의 윌리엄 밀러(1782-1861); 아프리카, 이집트, 아비시니아, 아시아, 팔레스타인, 시리아, 페르시아, 우즈베키스탄, 인도에 메시지를 전한 조셉 울프(1821-1845)도 있었습니다.

그들 이전에 예수님의 재림을 연구한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그들은 예수님께서서 19세기 중반에 다시 오실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예수님의 재림:

 축복된 소망.

 예수님은 어떻게 오실 것인가?

 윌리엄 밀러: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

 예언된 기간들.

 이천 삼백일에 대한 예언.

예수님의 재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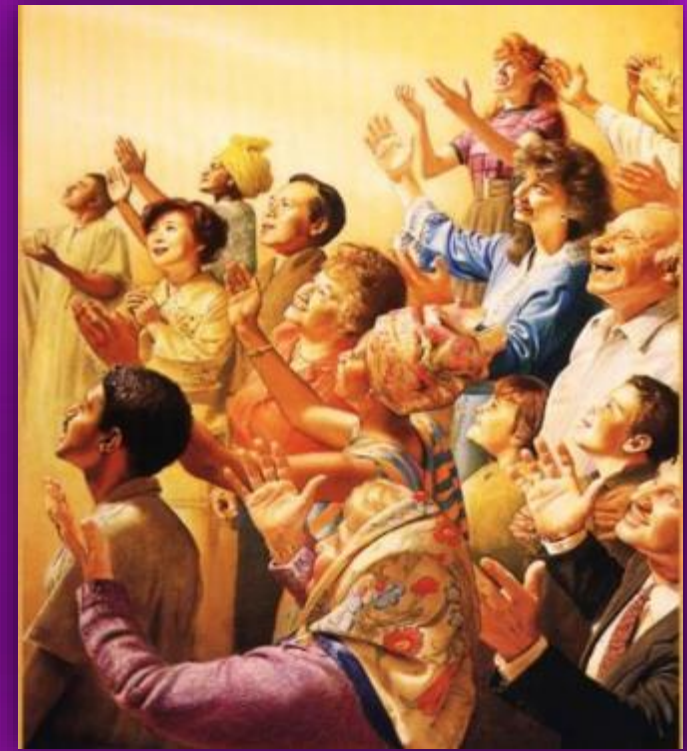


축복된 소망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디도서 2:13)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약속은 (요 14:1-3) 오늘날까지 모든 믿는 사람들의 소망이 되었습니다 (딤후 2:13).

이 소망은 로마 카톨릭 교회와 정교회의 신조에 반영되어 있으며 성공회 교회, 루터, 칼빈, 그리고 다른 개혁자들도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그토록 간절히 기다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질병, 아픔,
그리고 죽음이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가난과 불의함,
억압도
사라집니다.



싸움, 갈등,
전쟁도 끝나고



평화와 행복,
하나님과 영원히
친밀하게 사는
세상이 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오실 것인가?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마 24:27)

19세기 개신교도들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천년 평화의 왕국을 세우실 것 (전 천년설)이라고 가르치거나 재림 전에 천년동안 평화의 시간이 올 것 (후 천년설)이라는 등 잘못된 재림의 교리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개혁자들은 천년왕국 이전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고 가르쳤으며...



문자 그대로.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계. 22:20)



눈으로 볼 수 있게. “모든 사람이 그분을 볼 것이며” (계. 1:7; 마. 24:27)



귀로 들을 수 있게. “주님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살전. 4:16; 고전. 15:52)



영광으로. 죽은 사람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살아 남아 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할 것 (살전. 4:13-18; 고전. 15:51-55)



A painting of a man in a dark suit and white shirt, sitting at a wooden desk. He is looking towards the right. On the desk, there is a large vase filled with white and purple flowers, a book, and a small object. The background is a soft, hazy landscape. The overall style is classical and somewhat somber.

윌리엄 밀러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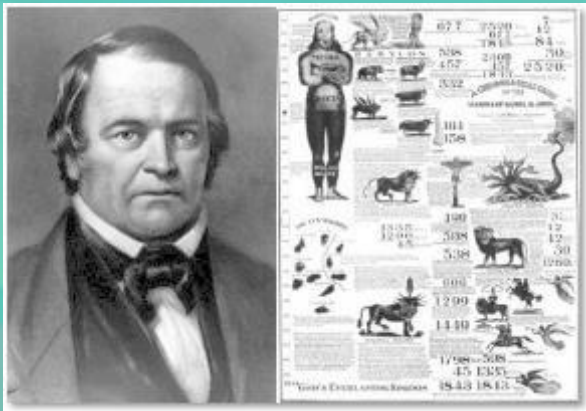
“대저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되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는구나 하는도다” (사 28:10)

이사야서(사 28:9-10)를 기준으로 삼은 윌리엄 밀러는 오직 성경말씀만을 사용해서 성경을 해석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는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성경의 모든 구절을 연구했습니다. 한 구절을 이해하지 못하면 그는 다른 성경 구절에서 그 해결책을 찾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성령님께서 그가 성경말씀을 분명하게 이해될 때까지 밝게 비추어 주셨습니다.

성경의 예언들을 읽었을 때에도 그는 같은 원칙을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밀러가 이러한 원칙을 적용하자 놀라운 발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짐승은 열국들을 상징하고 (단. 7:17, 23)



바람은 파괴(멸망)을 상징하고 (렘. 49: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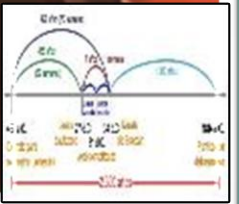
물은 다수를 상징하고 (계. 17:15)



여자는 교회를 상징하고 (겔. 23:4; 고후. 11:2)



하루(1일)는 일년을 말합니다 (민. 14:34; 겔. 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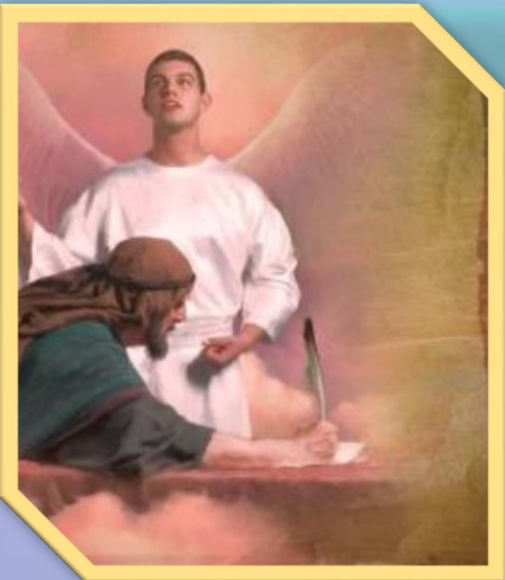
예언된 기간들

“그가 내게 이르되 이천삼백 주야까지니 그 때에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하였느니라” (단 8:14)

밀러가 살던 때에는 이 세상(지구)을 성소로 생각 했었고 그는 성소가 정결하게 될 것이라는 예언(단 8:14)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를 말하는 것이라고 추론했습니다.



밀러는 가브리엘이 다니엘에게 모든 환상의 세밀한 것들까지 설명해 주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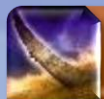
숫양 = 메데와 페르시아 (단. 8:20)



염소 = 그리스 (단. 8:21)



꺾인 뿔 = 알렉산더 대왕과 후계자들 (단. 8:21-22)



작은 뿔 = 정치적 종교적 권세를 가졌던 로마 (단. 8:23-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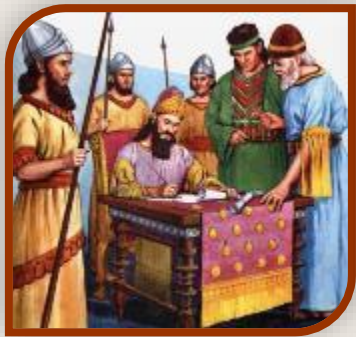


하지만, 이천 삼백주야에 대한 설명은 없었습니다 (단. 8:26-27).

몇 년이 지나서 가브리엘은 그 점을 다니엘에게 설명하기 위해 다시 나타났습니다 (단 9:21-23). 그는 특정한 기간, 즉 “구별된” 시간이 있으며 그것은 “예루살렘을 중건하고 건축하라는 영(명령)이 내릴 때”(단 9:24-25)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밀러는 이 구별된 기간의 시작점이 바로 2,300일/년의 시작임을 알게되었습니다.

이천 삼백일에 대한 예언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인 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에스라 7: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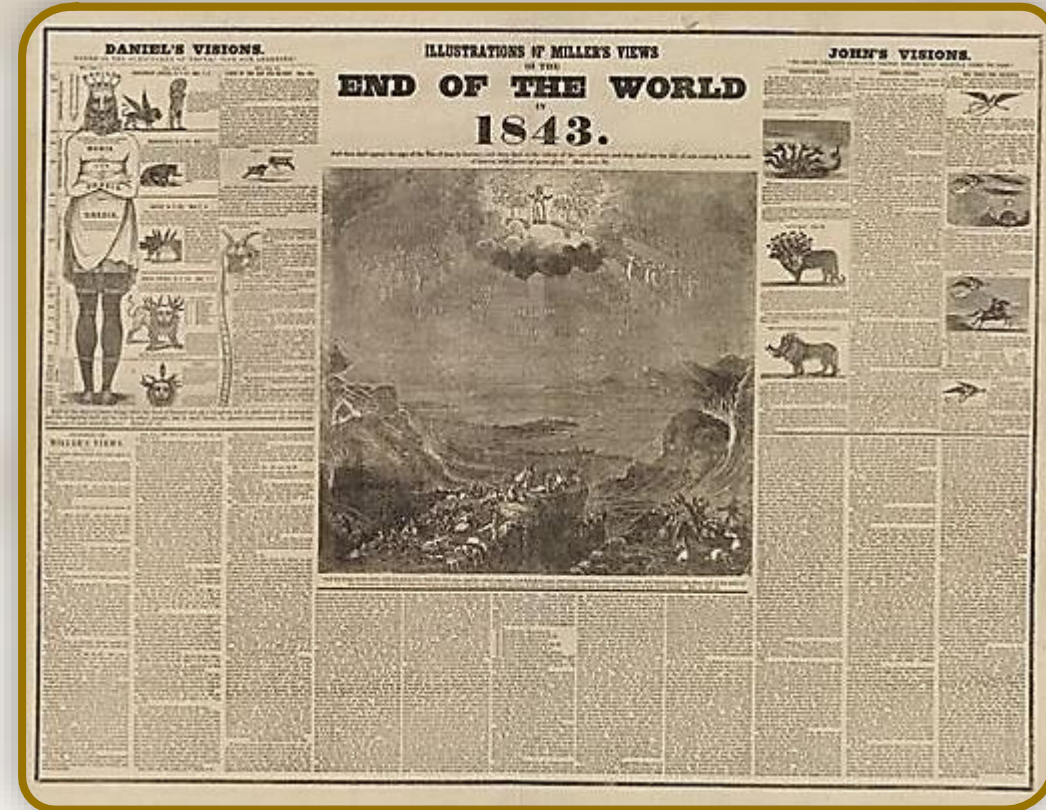


페르시아 아닥사스다왕은 그의 통치 7년차에 에스라에게 정치적 자치권을 주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그 도시를 재건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스 7:7, 11-14, 20-21, 24-25). 바로 기원전 457년이었습니다.

70주 예언에서 알 수 있듯이 예루살렘이 완전히 재건되는 데는 49년이 걸렸고, 메시아는 434년이 지나서 오실 것이었습니다 (단 9:25). 이 계산에 따르면 예수님은 서기 27년에 침례 받으시고, 70주의 끝은 서기 34년입니다.

밀러는 예언된 기간들을 연구한 후 예수님께서서 1843년에 다시 오신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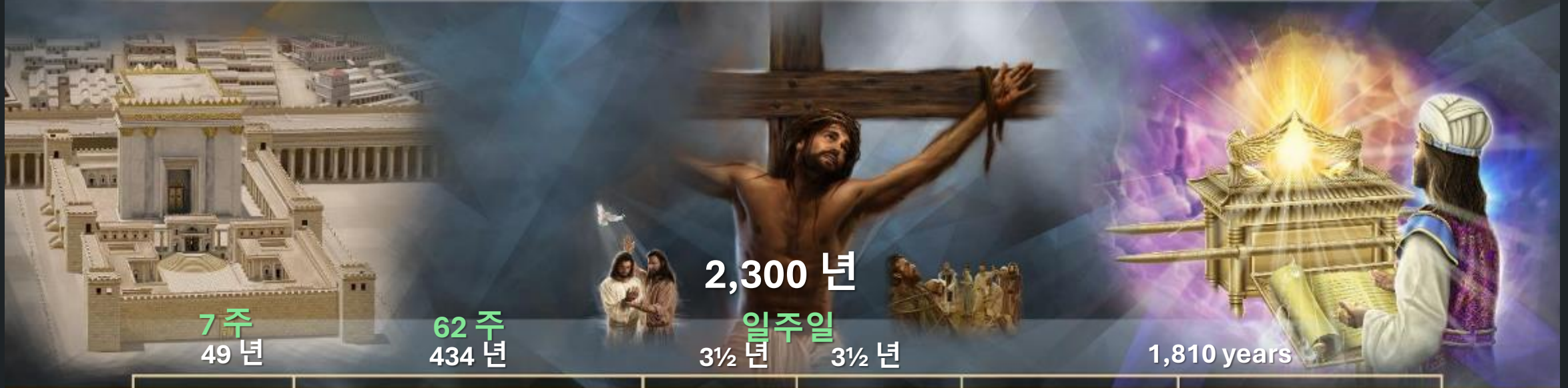
역사상 “0년”이 없이 (기원전 1년에서 서기 1년으로 넘어간) 것을 알게 된 후, 밀러는 예수님의 재림 시기를 1844년으로 고쳤습니다.



이천 삼백일에 대한 예언

“네 백성과 네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일흔 이레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단 9:24)

“이천삼백 주야까지니 그 때에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하였느니라.”



기원전 457	기원전 408	서기 27	서기 31	서기 34		서기 1844
아닥사스다 왕의 명령	재건축	예수님께 서 기름부음 받으심	예수님의 십자가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음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짐	성소가 정결하게 됨
	70 주 490 년					

“성경말씀에서 가장 엄숙하면서도 영광스러운 진리 중 하나는 위대한 구원을 완성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사망의 그늘진 땅”에 머물러 있던 하나님의 순례자들에게 “부활이요 생명”이신 분이 오셔서 “잃었던 자녀들을 다시 본향으로 데려가시겠다”는 약속을 주셨고 그들을 기쁨의 소망으로 채우셨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성경의 핵심교리입니다.”

엘렌 화잇 (대 쟁투. 299)



“우리에게는 오늘 하루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을 굳게 지켜야 하고, 오늘 우리는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자신을 사랑하듯 사랑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원수의 유혹을 뿌리치고 예수님의 은혜로 이겨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때를 지켜보고 기다리게 될 것입니다. 매일 우리는 오늘이 이 세상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살아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님께서 내일 오실 것을 알게 된다면, 오늘 우리는 할 수 있는 모든 친절을 하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지 않겠습니까?”